



기술표준뉴스

전기제품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09.1.1부터 오디오, 프린터 등 저위험 전자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절차가 간소화 되고, 개정된 안전기준의 적용시기가 늦추어지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주요 전기제품(247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신개발 제품과 융·복합 전기 제품 등의 출시가 증가하여 현행 안전인증제도만으로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애로가 있어왔다.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험수준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시험만 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사용안전확인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령 개정공포 : '08.12.24, 시행규칙 개정공포 : '08.12.31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적용되는 앰프, 라디오, 프린터 등 95종의 전기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와 연 1회의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공장심사를 받기위해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절감되어 2천여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안전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이 새로운 안전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애로가 있어왔으나, 바뀌는 안전기준 유형별로 적용시기를 차등적용 하여 기업이 안전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충분한 준비기간(6개월~2년이상)을 주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현재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해왔던 안전성확인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시험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를 합리화 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관리해왔던 안전관리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사용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합동으로 제품안전 모니터링사업을 확대하는 등으로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제 색채산업 동향 세미나

색채산업동향세



기술표준원은 '08.12.19(금)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색채·디자인 관련 기업, 학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색채산업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8년 산업 기술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 세미나는 최근 사회전환에 걸쳐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서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고무기가지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색채산업의 최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색채표준화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남인석 기술표준원장은 치사를 통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과 디자인 강국 구현에 필수 요소인 색채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 생활에서부터 최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 색채표준을 보급하여 색채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 색채 감각을 브랜드화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문화, 관광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색채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색채분야 의사소통 수단인 색채표준의 현황과 향후 표준화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색채 마케팅 전략, 시각문화에서의 색채 가치, 색채를 사용한 감성화질의 평가 등 최근 색채산업 동향이 소개되어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방디자인센터(부산, 광주, 대구경북)와 합동으로 '국가 색채표준 이행·확산' 및 '공공디자인용 표준색견본 개발' 등의 '색동코리아' 사업과 각 지방의 색채산업을 진시하여 국가 색채표준의 활용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조사 결과

기술표준원은 '08년 12월 31일 국가표준(KS)의 바이오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실시한 '07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834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2008년 9월~11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07년 국내 바이오업체의 생산규모는 총 3조 7,138억 원으로 전년의 3조 1,595억 원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업체의 생산규모는, 지난 '05년과 '

'06년 각각 14.5%와 14.0% 증가하여, 3년간 연평균 15.4%의 생산증가세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업계의 '07년도 총 수출액은 1조 4,715억 원으로 '06년 대비 8.9%, 수입액은 1조 209억 원으로 '06년 대비 9.1% 증가하였다.

바이오업계의 종사인력은 총 2만 236명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연구인력이 1만 178명으로 생산인력 1만 58명을 약간 초과하였다.

기업규모에서 보면 종업원수 11인 이상 500인 이하의 중견기업 비중은 '05년 69.3%에서 '07년 75.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종업원 501명 이상의 대기업은 '05년 6.6%, '06년 6.2%에서 '07년에는 7%로 소폭 증가하였다.

바이오산업의 생산분야를 보면 바이오의약(44.1%)과 바이오식품(34.4%)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바이오화학(6.1%), 바이오환경(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바이오의약 비중은 '06년 39%에서 45%로 증가하고, 바이오식품은 43%에서 35%로 감소하여, 보다 기술집약적인 바이오의약분야의 생산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생명공학기술 이용현황, 종업원 최종학위분포, 지역별 산업체 분포 등을 산업연구원과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04년 통계청 승인번호 제 11515호)

통계조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www.kats.go.kr), 산업연구원 (www.kiet.re.kr) 한국 바이오 협회 (www.bidindus.net)의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2008년도 제3회 신기술 (NET) 인증서 수여식



기술표준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30개의 새로운 기술을 2008년도 제3회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선정하고 신기술(NET)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008.12.22(월) 16:00~ / 르네상스호텔(역삼동 소재)
- 인증기술수 : 30개(대기업 8개, 중소기업 17개, 출연(연) 1개, 공동 4개)
- 분야별기술 : 신기신자 6, 정보통신 2, 기계소재 13, 원자력 1, 화학생명 5, 건설환경 3

이번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에는 「주엔 켈렉」이 개발한 "AMOLED용 비정질 실리콘의 주열 가열 유도 결정화 기술(JIC)"은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실리콘 박막을 결정화 하는 기술로서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할 중요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 결정화 기술 대비 50% 장비 투자 절감 효과와 80% 정도의 유지보수비 절감 효과 및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그동안 신기술(NEI)인증을 위하여 신청·접수된 118개 기술에 대하여 1차 서류·면접심사 및 2차 현장 심사, 그리고 3차 종합심사의 3차례 심사를 통하여 예정기술로 공고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의조정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기술 17개, 대기업 기술 8개, 공동개발 기술 4개, 출연(원) 기술 1개로 모두 30개 기술에 달한다.

1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향후 협력방안 및 그동안 양국에서 있었던 안전사고 사례 등에 대하여 정보교환을 하였으며, '09년 2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ISO) 회의시에 상호 준비한 세부 협력 추진계획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하였다.

■ ICPHISO :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 Safety Organisation(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이로써, 양국은 제품안전 사고사례, 수입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동향 등 각종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생활 제품에 의한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신속히 대처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2월 18일 국내에서 미국 애플사의 MP3 '아이팟 나노' 배터리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의 사고 사례('08.8. '아이팟 나노' 배터리 사고로 소비자 경보발령)를 신속히 제공 받는 등 앞으로 위해 정보 공유, 정례회의 개최, 전문가 상호 파견 및 제품안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한·일 양국간 제품안전 업무협력 MOU 체결



한국과 일본 양국가에서의 제품안전에 대한 위해사고 예방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08.12월 12일 한·일 제품안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한 제품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실무단은 12월 12일 경산성 회의실에서 약

자동재폐로형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고시

기술표준원은 누전차단기가 일시적인 누전 등으로 인해 차단될 경우, 자동으로 회로를 복구시키는 자동재폐로 기능을 가진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12.4(목)에 고시하였다.



이번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동 제품의 사용과 관련 무인기지역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제조업체가 시장확대를 위해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공장, 별장 등에도 판매할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자동재폐로형 누전차단기 안전기준은 그간 관련 제조회사, 전기연구원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전문가 토론회(3회), 공청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WTC/ITF¹⁾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 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장소를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곳을 제외한 이동통신기지국, 중계국 등의 무인설비로 제한하고, 누전여부를 감지하여 누전차단기의 차단원인이 제거된 후에 차단기를 자동으로 복구시키는 방식만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시간고정형*은 부하기기의 고장,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

* 시간고정형 : 누전차단기의 차단원인을 확인·제거하지 않고 일정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으로 누전차단기를 재폐로시킨다.

동 제품은 일본, 독일 등에서만 무인설비에 보급되고 있으나, 현재 세계적으로 안전기준이 마련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우리나라에서 안전기준이 세계 최초로 마련되어 국내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술력 향상 등을 통해 국내제품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제품의 충분한 기술력 확보 및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진 후 국제기준 제안서를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 중세계 최초 국제표준(IEC)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34차 자동차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ISO/TC22) 총회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동차분야 최고 의결기구인 “제34차 자동차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ISO/TC22)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08.12.9(화)~12.11(목)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 참가 규모 : 미국, 일본, 독일 등
10개국 30여명

* 자동차분야 기술위원회 및 산하 23개 분과위원회의 의장 또는 간사와 정식 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의장단 회의 성격임.

우리나라는 2007년 6월, 제33차 독일 총회에서 차기 회의 개최지로 유력했던 일본, 미국을 제치고 이번 총회를 유치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이 처음 참가키로 함에 따라 자동차 선진국 및 신흥국의 주요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최초의 회의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SC21) 등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기술표준과 정책방향 및 향후 추진 전략이 논의되었다.

* SC(Sub Committee) : TC 산하 분과위원회

국제환경규제 등과 맞물려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IEV)용 리튬이온전지 시스템, 자동차 에어컨 차세대 냉매 시스템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다.

또한 자동차 기술위원회에서 개발한 ISO 표준을 UN/ECE/WP29의 자동차 국제규정에 반영하는 전략도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으로 제안 예정인 지능형 주차브레이크 시스템 등 IT융합 지능형자동차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신규 프로젝트 리더 수입을 목표로 각국 대표들과의 협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국제표준화 총회를 계기로 자동차산업 세계 5위 위상에 걸맞는 표준화 추진 영향력 확대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

도해 나갈 수 있도록 표준화 기반조성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표준 2009.1